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공현(公現, Epiphania)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입니다. 이 날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 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하러 왔습니다.”(마태 2.2)하고 말하였습니다. 헤로데 임금과 온 예루살렘이 깜 짝 놀랐습니다.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헤로데에게, 유다 베들레 헴이라고 답했습니다. 헤로데는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마태 2.8)하고 부탁했습니다.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

경배하였습니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인종, 언어, 그리고 국적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를 평등하게 동일시 하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을 찬미하게 합니다. 이 대축일은 신앙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대한 환희의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보물 상자를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서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는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신에 바르는 몰약은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같은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맞갖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별의 인도로 예수님을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우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도록 하십니다. 또한 모든 민족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민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계림동 본당 전장호 프란치스코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림과 같이, 주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 고백하는 우리들도 정성된 예를 드리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87번 ‘동방의 세 박사’

### 본기도

†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이사야서 60장 1절-6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묵 상** :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며 우리 삶의 숨은 모습까지도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2독서 : 에페소서 3장 2절.3절.5절-6절

**안 내** :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묵 상** : 우리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은총으로 그분을 알아 뵈게 되었고 그 신비를 알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장 1절-12절

---

**강 론 :** ‘주님 공헌 대축일’(1-2쪽)

**예물준비성가 :** 100번 ‘동방의 별’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누구이신지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침묵>**

주님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오늘,

우리가 믿어 고백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은 진귀한 예물이 아닌

볼품없는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의 정성되고 소박한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려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86번 ‘거룩한 밤’(2)

**※ 공소사목 성금**

김남만님

50,000원

영덕성당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2,37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림

### ■ 사제 서품식

- 일시 : 1월 21일(주일) 15:00
- 장소 : 목성동주교좌성당
- 사제품 대상자 :  
박철현 가브리엘(휴천동 본당),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모전동 본당),  
우석민 로만(하망동 본당),  
송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모전동 본당)
-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 방법 : 1.본당에 준비된 서명지 이용  
2.온라인을 통한 청원
- \* 신부님들께서는 공문 천안교 제2017-106호를 보시고 신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된 서명지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주교회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청소년 견진캠프

- 일시 : 1월 12일(금) 15:00-14일(주일) 17:00
- 장소 : 문경 정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교구 내 중·고등부 견진대상자  
(현 중1-고2)
- 준비물 : 신약성경(새번역), 목주, 주일미사 준비, 따뜻한 겨울옷, 운동화, 세면도구, 필기도구
- 참가비 : 1인 80,000원
- 신청 : 2018년 1월 8일(월)까지

###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 남성 제42차 꾸르실료

- 일시 : 1월 11일(목)16:00-14일(주일)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0,000원
- 추천 인원 : 각 본당 3명 내외
- 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65세 이하
- 신청처 : 본당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 제85차 ME 주말

- 일시 : 1월 19일(금)19:00-21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7일(주일)까지
- 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된 부부, 짝교우, 비신자, 타종교인 가능, 사제, 수도자
- 문의 및 신청 : 안동ME대표부부 (010-6580-8408, 010-6500-8408)

###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꽃감 판매

- 건시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 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3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 2018년 파티마유치원 교사 채용 (상주 서문동 성당)

- 자격 : 유치원 정교사
-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신청 : candida1208@hanmail.net 또는 방문
- 문의 : 054-535-4851 / 010-2529-2696

### ■ 노인복지 한알(무료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입소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할머니)
- 입소 어르신 거주 지역 제한 없음
- 연락처 : 054-861-9256, 010-4509-2242

### ■ 2018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안내

- 일시 : 8월 14일(화) ~ 16일(목)
- 장소 :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 대상 : 초등부 3~6학년 / 선착순 300명 한 본당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
- 참가비 : 비회원 125,000/회원 80,000원
- 문의 : 02-2268-7103, pmsk@pmsk.net

###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 대상 : 만 15~30세 남자
-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 기간 : 2018.3~12(2월예비학교무료)
- 혜택 : 교육비·기숙사비무료, 훈련수당지급 취업지원(최근5년평균취업률98.4%)
- 문의 : 02-828-3600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6장 사목적 전망

#### 신혼 생활 초기에 함께하기

##### 일부 자원

228.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신앙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 배우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이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좌절되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함께 나누며 함양할 수 있는 공통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신자가 아닌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 주며, 그의 고통을 달래 주고, 그와 삶을 함께 하는 것이 참다운 성화의 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은 언제나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이 퍼진 곳에서 사랑은 종종 신비로운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여 심지어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도록 합니다”(1코린 7,14).

229. 본당, 운동 단체, 학교, 교회의 여러 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을 지원하고 가정에 힘을 보태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 부부나 친한 부부들과의 만남, 부부를 위한 단기 피정, 가정생활의 매우 구체적 문제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연, 혼인 상담 센터, 부부의 어려움이나 바람에 관한 상담 전문 선교사, 중독과 불륜과 가정 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 가정 문제에 관한 상담, 영성을 위한 공간, 문제아를 둔 부모를 위한 연수, 가정 모임과 같은 것입니다. 본당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정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는 이를 기꺼이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단체는 선교, 기도, 교육, 상호 협력의 봉사를 통하여 사목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부부가 베풀고 다른 가정에 자신

---

을 열고 신앙을 서로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이 단체는 부부에게 힘을 보태어 주고 그들이 성숙하도록 돕습니다.

230. 혼인을 하고 나서 많은 부부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되돌아올 때 그들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혼인의 이상을 다시 제시하지 못하며, 그들을 동행하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세례와 첫영성체, 또는 친지나 친구의 장례나 혼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거의 모든 혼인한 부부가 다시 공동체에 나타나기에 우리는 이 기회를 더욱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가정을 축복하거나 성모상을 이웃집에 가져다주는 방문입니다. 이는 가정상황에 관한 사목적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성숙한 부부에게 그들의 이웃에 사는 신혼부부를 방문하여 혼인 초기에 그들과 함께하며 성장의 길을 제시하는 일을 맡기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쁜 삶에서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모임에 자주 참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목이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 사목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수만을 위한 작업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 위기와 근심과 어려움에 빛 비추기

231. 또한 숙성된 좋은 포도주와 같은 사랑을 하는 부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혼인 여정의 경험으로 포도주가 숙성되면 삶의 매순간에 신의가 드러나 온전히 만개하게 됩니다. 신의는 인내와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과 기쁨으로 충만한 신의는 삶의 각 단계에서 꽃을 피워 모든 것이 성숙해지고 부부가 후손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빛나게 됩니다. 부부가 날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서로를 새롭게 보게 되면 처음부터 지냈던 사랑을 이제 깨닫고 굳건하게 하며 성숙시키게 됩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오래된 연인들은 이미 수련을 쌓고 많은 시련을 겪은 이들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래된 연인들은 “감각의 거품이나 발효나 격정적인 외적 불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영혼 안에 있는 실체 안에서 잘 발효된 포도주의 감미로움을 맛봅니다.” 이와 같은 부부는 도전에 당면하여 물러서지 않거나 어려움을 감추지 않으며 위기와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 여행의 완성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젊은 시절 국어 선생을 이십여 년 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편의 글 속에서 '기행문을 써야 여행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기 등을 종종 쓰게 했지만 나는 정작 기행문을 써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작년 미얀마를 다녀온 뒤 기행문을 쓰고 싶었다. 함께 즐겁게 여행을 마무리해 준 일행들에게 보답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처음으로 느긋하게 여행다운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우선 사원마다 맨발로 걸은 경험과 바간의 파고다 숲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어느 파고다의 어두운 회랑에서 만난 벽화 속 여인의 미소와 수상 호텔의 일몰 정경은 설렘이 좀 잔잔해지기를 기다렸다 써야겠다. 짧은 글 두 편을 쓰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느낀 게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눈으로 보고 혹은 마음으로도 본다고 한다. 마음으로 본다는 말에는 느낌과 함께 무의식의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바간의 불탑에 대해 쓰다보니 기억과 생각이 이어지고 풀려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평소에 멈추어 있던 의식이 잇고 있던 무의식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는 깊고도 멀다. 파면 팔수록 더 샘솟는 우물처럼. 눈으로 본 것도 마찬가지다. 글로 써나가다 보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눈이 흡수해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도 그렇다. 그 장면은 생생하지만 그때 불던 바람의 맛과 그리움까지 담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글을 써 나가다보면 멈추었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움이 살아난다.

기행문을 씬으로 여행 전반을 찬찬히 다시 돌아볼 수 있다. '좋았다' '힘들었다'는 단순한 느낌의 끝에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숨어있던 무의식의 세계로의 여로이며, 아직 미얀마의 인레호수나 우베인다리에 머물고 있는 자기를 찾아 떠나는 길이다. 새롭고 깊은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도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그냥 쓰면 되는 것이다.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니까. 너무 재고 기다리지 말라. 생각은 손에서 풀어지고 이어진다. 되도록 짧고 쉽게 쓰고 막히면 말하면서 그 말을 따라 쓰면 된다. 다만 컴 앞에 앉으면 절대 두 시간 전에는 일어나지 말기.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머리에 쥐가 날 지라도 두 시간쯤 견디면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문득 그 단어가 유성처럼 화면에 나타나고 기대보다 더 멋진 문장이 이어지는 것을. 영감은 그런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다가올 삼백육십오 일이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면 시간은 너무나 덧없다. 시간을 되찾고 저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글쓰기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우리 하루하루는 날마다 자기제로의 긴 여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행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여행을 완성하기 바란다.